

동물 세계의 이해 (1~16)

01. 《동물들의 겨울나기》

베른트 하인리히 지음 | 강수정 옮김 | 최재천 감수 | 에코리브르 | 400쪽 | 값 16,500원
숲속에서 동물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키우고, 같이 사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영하 2,3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에도 동물들의 뒤를 쫓는 저자의 모습에서 동물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나타난다. 인간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겨울을 보내는 다양한 모습을 통해 자연에의 애착과 동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02. 《동물에게도 문화가 있다》 리듀커진 지음 | 이한음 옮김 | 지호 | 288쪽 | 값 13,000원
애완용 물고기인 거피, 공룡장소에 모여 짝짓기하는 새 렉, 나아가 영장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을 연구해 모방과 문화적 전달의 사례를 소개하는 책이다. 저자는 문화적 전달과정과 진화과정과의 상관성으로 사회적 동물진화를 설명하고 과학적인 연구가 어려운 '모방'이라는 실험방법을 제시한다.

03.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최재천 지음 | 효형출판 | 268쪽 | 값 8,500원
동물들이 사는 모습을 알수록 그들과 우리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믿음을 전하고 있다. 개미군단의 만리장성 쌓기 '고래들의 따뜻한 동료애' 갈매기의 이혼' 까치의 기구한 운명' 황소개구리의 세계화' 여왕벌의 벌난 모성에' 등 애정으로 들여다본 각기 다른 동물들의 세계가 담겼다.

04. 《솔로몬 왕의 반지》 콘라드 로렌츠 지음 | 김정수 옮김 | 간디서원 | 358쪽 | 값 9,000원
동물과 대화를 했다던 솔로몬 왕처럼 들려주는 콘라드 로렌츠의 동물 이야기. 연구를 위해 새끼 기러기의 부모가 되고 까마귀, 늑대, 개, 오리, 앵무새 등의 친구이자 우두머리가 되어 동물들의 생태와 언어를 밝힌다. 동물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만 성향과 행동이 충분히 드러난다는 지론으로 밝힌 동물의 비밀이 담겨 있다.

05. 《개미제국의 발견》 최재천 지음 | 사이언스북스 | 146쪽 | 값 15,000원
세계적인 동물행동학자가 들려주는 개미제국 탐험기. 몸집은 작지만 지구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개미세계의 모든 것을 밝힌다. 개미사회를 경제, 문화, 정치 등으로 나누고 분업제도, 일개미의 직업 등 16개 장으로 구성했다. 풍부한 원색의 사진과 그림을 곁들인 자세한 설명이 흥미를 더한다.

06. 《곤충의 사생활 엿보기》 김정환 글·사진 | 당대 | 254쪽 | 값 12,000원
단순한 분류학을 기준으로 연구하지 않고 생태학과 행동학의 관점에서 본 곤충 이야기다. '물리학자 소금쟁이' '사슴벌레의 투쟁' '방아벌레의 도약' '곤충의 보호색' '나뭇잎벌의 모성애' '모기의 사생활' 등으로 구성됐다. 알고 보면 인간의 생활과도 닮은 곤충의 사생활을 전한다.

07. 《곤충의 행성》 하워드 E. 에번스 지음 | 윤소영 옮김 | 사계절 | 430쪽 | 값 13,500원
한 생물학자의 곤충과 인간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왕바퀴의 지성과 감성세계' '기생벌이 만드는 살기 좋은 세상' 등 곤충에 의한 인간 이야기, 인간에 의한 곤충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 밖에 반딧불이 이야기, 나비와 파리, 메뚜기 등 곤충들의 흥미있는 이야기를 풀어쓴 자연사 분야의 고전이다.

08. 《꿈꾸는 푸른 생명 거북과 뱀》 심재한 지음 | 다른세상 | 280쪽 | 값 15,000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심재한 박사의 파충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주로 뱀과 바다거북, 도마뱀, 악어를 다룬다. 부화에서 죽음까지의 살아가는 모습과 생김새 등을 다양한 컬러사진과 그림으로 자세하고 흥미롭게 풀어쓴 설명이 파충류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09. 《달팽이》 권오길·이준상 지음 | 지성사 | 160쪽 | 값 15,000원
달팽이의 모든 것을 담았다. 1부에는 달팽이의 생태, 2부에는 현재까지 발견된 종과 분포, 3부에는 달팽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인간과 달팽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멸종위기에 닥친 달팽이의 보호에 대해서도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달팽이에 얽힌 비밀과 아이와 함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담아 유용한 정보를 전한다.

10. 《동물들의 집짓기》 원다ushman 지음 | 문명식 옮김 | 지호 | 224쪽 | 값 10,000원
여러 가지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는 동물들의 집짓기는 인류가 가진 건축기술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굴이나 동지에도 원리가 숨어 있고 집을 짓는 재료와 장소도 습성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보금자리의 생존전략을 설명하고 집짓기에 쓰이는 동물의 특성, 체액, 집 모양을 사진으로 자세히 보여준다.



자연 생태 기행 · 보고서 (17 ~ 25)

11. 《현산어보를 찾아서》(전5권)

이태원 글 | 박선민 그림 | 청어람미디어 | 각권 400쪽 내외 | 각권 값 23,000원
전라도 흑산도로 유배된 정약전이 집필한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학 서적 《현산어보》를 따라가며 새롭게 쓴 책이다. 원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인근해안에 사는 해양생물들의 상세한 생태를 글과 세밀화, 사진을 통해 다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생물도감이다.

12. 《아름답고 슬픈 야생동물 이야기》

어니스트 톰슨 시튼 지음 | 장석봉 옮김 | 푸른숲 | 308쪽 | 값 7,800원
시튼의 《동물기》로 알려진 책의 원전이다. 늑대왕 로보, 세상에 돌도 없는 까마귀, 여우의 눈물 등 8편의 이야기와 삽화를 통해 세밀하게 관찰한 야생동물들의 삶과 비극적 죽음을 그대로 묘사한다. 야생동물의 슬프지만 영웅적인 삶이 잘 나타나있는 이 책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도덕을 발견하게 한다.

13. 《고릴라》마이클 브라이언트 지음 | 이충호 옮김 | 다림 | 96쪽 | 값 9,000원

아프리카 숲에 사는 '부드러운 거인' 고릴라. 사실 고릴라는 지능이 높고 사회집단을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채식주의 동물이다. 저자는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고릴라의 사교성, 먹이 찾는 습관, 활기 넘치는 표정 뒤에 숨은 의미 등 그들의 습성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고릴라 우리의 각 구성원들을 만나본다.

14. 《곤충 이야기 : 어린 시절 체험에서 얻은 놀랍고도 신비한 이야기》

기태완 글 | 기성재 그림 | 고요아침 | 228쪽 | 값 8,000원
저자는 이 책에서 어린 시절에 숲과 강에서 만난 동물들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한다. 관찰과 기록으로 짜여진 자연생태보고서가 아닌, 자연에 의해서 자연과 함께 놀면서 적은 글이다. 삽입된 그림은 저자의 첫째 형이 그린 그림으로 우리 주변의 생물들과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자연을 만나게 한다.

15. 《바퀴벌레 : 인간의 오만과 편견에 맞선 세상 모든 생물의 지존》

데이비드 조지 고든 지음 | 문명진 옮김 | 뿌리와이파리 | 280쪽 | 값 12,000원
한 마리가 4,500만 마리로 자기분열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바퀴벌레. 저자는 바퀴벌레가 이로운 곤충이라는 주장으로 징그럽고 더럽다는 편견을 거뒤낸다. 출생부터 인류와 만나 엮어낸 다양한 문화까지 바퀴벌레와 함께 사는 곤충 전문가가 쓴, 바퀴벌레에 관한 백과사전이다.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16. 《딱정벌레 왕국의 여행자》

한영식 글 | 이승일 사진 | 사이언스북스 | 262쪽 | 값 22,000원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딱정벌레 약 200종을 땅, 꽃, 잎, 나무, 물 속, 밤하늘 등의 서식지별로 소개하는 책이다. 대표적인 딱정벌레 24종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여러 가지 채집방법에 대한 글은 독자들을 딱정벌레 왕국으로 안내한다. 곤충을 조사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길잡이다.

17. 《과부황새 그 후》 한국황새복원연구센터 지음 | 지성사 | 240쪽 | 값 15,000원

한국전쟁 이후, 멸종될 줄 알았던 황새의 사진이 1971년에 공개됐다. 수컷이 죽어 과부황새만 남아 재혼은 국가적 관심을 끌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7년 만에 성공한 자연번식.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황새 복원연구에 대해 기록한 이 책은 황새를 비롯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18. 《나비 따라나선 아이 나비가 되고》 이가영 지음 | 뜨인돌 | 220쪽 | 값 9,000원

8년 전 강원도 산골에 '홀로세 생태학교'를 세운, 가영이네 가족이야기다. 나비와 친구되어 교감하는 자신의 이야기와 멸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비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진솔하게 담았다. 생태학교의 학생들이 그린 곤충그림이 수록돼 있고 자연에서 배우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들려준다.

19. 《새야 새야 날아라》 윤무부 지음 | 창조문화 | 268쪽 | 값 8,500원

30년 이상 탐조여행을 다녔던 '새 박사' 윤무부 교수와 함께 떠나는 새 여행이다. 경기도 광릉, 전남 해남 보길도, 충남 서산 천수만, 제주도 하도리 양어장 등 전국 18곳과 인근 야산 2곳을 여행하면서 그곳에 서식하는 새들의 종류와 습성, 생태 등을 사진과 함께 담았다.

20. 《아마존의 신비, 분홍돌고래를 만나다》

사이 몽고메리 지음 | 승영조 옮김 | 돌베개 | 360쪽 | 값 12,000원
여성 탐험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사이 몽고메리가 아마존의 분홍돌고래를 탐사하면서 쓴 책이다. 희귀동물인 분홍돌고래의 생태와 아마존 강 유역 토착민들의 삶, 인간과 분홍돌고래 사이의 실화 등 흥미로운 자연사가 담겼다. 멸종 위기 야생동물의 포획 실태, 생태보존의 다양한 노력, 자연과 인간 사이의 교감을 전한다.



사 라 저 가 는 동 물 들 (2 6 ~ 3 4)

21. 《야생의 낙원》 마토 비푸스 지음 | 이승은 옮김 | 북라인 | 368쪽 | 값 14,500원

세렌게티 초원에서의 예술가와 치타의 우정 이야기. 인간과 자연의 진한 교감의 기록과 우리에게 갈혀 있는 치타를 야생의 초원으로 돌려보내기까지의 여정을 감동적으로 담았다. 겸허한 고백으로 아프리카의 아름다움과 평원의 바람, 치타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들려주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임을 전한다.

22. 《울지 않는 늑대》 팔리 모왓 지음 | 이한중 옮김 | 돌베개 | 238쪽 | 값 9,000원

북극 늑대와 함께한 1년여 동안의 생활을 기록한 책이다. 현재 야생늑대는 멸종위기에 있다. 인간문명에 희생된 야생늑대의 진실과 자연 파괴자인 인간에 대한 풍자 등을 소설적 구성으로 전한다. 야생늑대의 삶에 대한 보고서이자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 담긴 문명 비판서다.

23. 《내가 만난 희귀동물》

다이앤 애커먼 지음 | 감미경 옮김 | 세종서적 | 312쪽 | 값 7,500원

멸종위기가 특히 심각한 대표적 세 동물, 멧코물범, 짧은꼬리아바트로스, 황금사자마린원숭이와 위협에 처한 두 지역인 아마존과 플로리다 관목림을 논한다. 저자는 누군가 사라져가는 생명체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의 서식지를 찾아 나섰다.

24. 《저 푸름을 닮은 야생동물 : 한국의 야생동물, 그 모든 이야기》

유병호 지음 | 다른세상 | 244쪽 | 값 13,000원

야생 포유동물에 관한 흥미진진한 현장보고서. 저자는 해당 동물이 나오는 속담과 '불이 났을 때 야생동물은 어떻게 대처하는가'와 같은 의문을 곳곳에 두어 독자들에게 이해와 상식을 동시에 제공한다. 야생동물의 강인한 생명력과 생김새, 생태환경, 습성, 먹이 등 살아가는 방식을 생생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담았다.

25. 《도도의 노래》 데이비드 콰멘 지음 | 이충호 옮김 | 푸른숲 | 378쪽 | 값 10,000원

자연생태에 관한 책을 쓰는 저자의 세계 오지 탐사기. 진화와 멸종을 연구하는 섬생물지리학의 역사와 진화의 비밀, 말레이군도에서 아마존 마스크렌제도 마다가스카르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일어난 멸종의 사례와 자연파괴를 막으려는 사람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한다.

26. 《제인 구달의 생명사랑 십계명》

제인 구달·마크 베코프 지음 | 최재천·이상임 옮김 | 바다출판사 | 272쪽 | 값 10,000원

구약성서 속의 십계처럼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책임 있는 실천을 촉구하는 열 가지 계명으로 구성돼 있다. 동물들도 각자 개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도 동물 세계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 담긴 '생명사랑 십계명'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필수적인 상호이해조약이다.

27. 《동물원의 탄생》 니겔 로스펠스 지음 | 이한중 옮김 | 지호 | 368쪽 | 값 15,000원

동물들을 포획해 연구대상으로 사용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인간의 입장을 역사적 방식으로 풀어 쓴 책이다. 인간이 개입하는 비자연사를 인류학적 시각으로 풀어내기면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집요함과 이기심을 묘사한다. 동물과 인간이 진정으로 공존하는 공간의 의미와 함께 현대 동물원의 모순을 밝힌다.

28. 《동물의 역습》 마크 롤랜즈 지음 | 윤영삼 옮김 | 달팽이 | 390쪽 | 값 15,000원

의식이 있는 동물이 인간과 생물학적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동물을 해치는 행위의 부당성을 알리는 책이다. 저자는 동물에게도 도덕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정의의 원칙'에 의해 논증하고 채식주의, 동물실험, 동물원, 사냥, 애원동물, 동물권리행동 등의 문제를 고찰한다.

29. 《동물해방》 피터 싱어 지음 | 김성환 옮김 | 인간사랑 | 420쪽 | 값 15,000원

동물들에 대한 인간의 폭정을 다룬 책이다. 인간이 동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동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그들을 다루는 태도를 통해 설명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지금 공장식 농장에서는' '인간의 지배' '오늘날의 종차별주의' 등 6개 장으로 구성했다.

30. 《우리 동물이야기》 박병상 지음 | 북갈림 | 328쪽 | 값 10,000원

생태학자 박병상의 우리 동물이야기. 고혈압 특효약으로 탕 속에서 끓고 있는 새끼고슴도치들, 참새들의 수난시대, 경첩이 무서운 개구리, 유명세로 고통받는 썩리 등 사람들의 무지와 탐욕,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동물들의 참상을 고발한다. 동물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물과 인간 사이 (35~43)

31. 《슬픈 흰곰의 노래》

장-루이 에티엠 지음 | 이재룡 옮김 | 동아일보사 | 208쪽 | 값 8,000원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산이 녹고 영토가 좁아져 위기에 처한 북극곰을 위한 변론을 담은 책이다. 의학박사이자 과학자, 작가인 저자는 파괴되기 쉬운 자연에 대한 보호의식을 촉구하기 위해 자연과 생태학적인 주제를 주로 다룬다. 생생한 일화와 감성적인 문체는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한다.

32. 《지구에서 사라진 동물들》

프로젝트팀 위음 | 한상훈 옮김 | 도요새 | 328쪽 | 값 12,000원
동물들을 문명과 맞바꾸어 살아온 인간들에게 진정한 상생의 의미와 생명가치를 반성하게 하는 책이다. 1600년 이후 726종이 절멸했고, 현재도 절멸위기에 있는 포유류는 505종에 이른다. 전 지구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른 지금, 인간중심의 철학에 바탕을 둔 현대문명을 논한다.

33. 《사라지는 한국의 야생동물들 찾아서》

김연수 글·사진 | 당대 | 384쪽 | 값 19,000원
자연 그대로 살아 있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야생동물들을 사진과 글로 담은 책이다.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글 형식으로 어려움 없이 동물의 모양, 습성, 유래 등을 소개한다. 동물들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들을 위해 인간이 해야 할 것을 일러주어 소중한 생명문화유산임을 자각하게 한다.

34. 《자연의 빈 자리 : 지난 5백 년간 지구에서 사라진 동물들》

팀 플래너리 글 | 피터 사우텐 그림 | 이한음 옮김 | 지호 | 272쪽 | 값 38,000원
지구 탄생 이래 멸종한 동물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대로 기록되기 전에 사라지고 채집가들에 의해 희생당한 종도 많다. 이 책은 동물들을 실물크기로 재현해 인간의 이기심으로 사라진 동물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준다. 지난 5백 년간 사라져간 103종의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35. 《침팬지 폴리틱스 : 권력 투쟁의 동물적 기원》

프란스 드 발 지음 | 황상익·장대익 옮김 | 바다출판사 | 302쪽 | 값 18,000원
저자는 네덜란드 부르거스 동물원 야외사육장 안으로 들어가 침팬지들을 관찰한 결과 너무나 인간스럽게 정치·사회적 우열관계를 형성해 가는 침팬지들을 목격한다. 이 책은 그 관찰과 기록의 결과물이다. 침팬지의 행동을 담은 사진과 화보는 실제 일사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며 감상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36.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대하여》

찰스 다윈 지음 | 최원재 옮김 | 서해문집 | 340쪽 | 값 9,000원
《종의 기원》으로 알려진 찰스 다윈은 생태학자들이 지금껏 직면했던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열거하며 그 해결을 위한 연구계획을 자세히 제시한다. 동물과 인간의 생물학적 행동원리와 여러 가지 감정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진화론을 근거로 그 근본원인을 설명한다.

37. 《제3의 침팬지 : 인류는 과연 멸망하고 말 것인가?》

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 | 김정흠 옮김 | 문학사상사 | 556쪽 | 값 9,000원
인간의 유전자는 침팬지와 1.6퍼센트만이 다르데 그 안에는 직립보행, 언어능력,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성생활 등 진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책은 생물학, 인류학 언어학 등으로 인류진화의 비밀을 풀어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했던 진화의 힘이 인류를 멸망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38. 《성은 운명이다》

유병신 지음 | 지성사 | 248쪽 | 값 8,000원
생물학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여성문제의 본질을 다룬 책이다. 저자의 핵심논리는 정자경쟁이다. 정자세계를 적자생존의 원리만이 유효하다는 논리를 시작으로 정자간 난지에 의해 '선택' 되는 과정을 상상과 함께 사실적으로 서술한다. '다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에 남남간 생산적인 관계맺기는 가능하다.

39.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루이스 윌퍼트 지음 | 최돈찬 옮김 | 궁리 | 274쪽 | 값 10,000원
'어떻게 다세포군이 눈, 코, 팔, 다리, 뇌 등 우리 몸의 구조로 형성될까?' 인간의 기원을 증명하는 생물학 중 가장 신비로운, 기관의 발생을 설명하는 책이다. 배아의 발생 과정을 통해 성장과 노화, 암과 치료 등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40. 《두발원숭이 : 인류는 선택받은 동물인가?》

김홍일 지음 | 한숨미디어 | 368쪽 | 값 10,000원
인간의 행동과 일반 동물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인류태생의 비밀을 파헤친 책이다. 전혀 다른 듯한 인간의 행동도 그 근원은 일반 동물의 본능에 있음을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대우는 정당하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사 랑 하 는 애 완 동 물 (4 4 ~ 5 1)

41. 《좋은아빠 나쁜아빠 : 동물행동학에서 본 아빠사랑 이야기》

제프리 M. 매스 지음 | 김하국 옮김 | 에디터 | 348쪽 | 값 12,000원

이 책은 동물들이 인간보다 본능적이고 진솔한 부성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리를 지어가며 새끼를 양육하는 펭귄, 입 안에서 새끼를 키우는 가시고기, 직접 임신해 주는 해마 등의 사례를 통해 동물세계에 나타난 다양한 부성애를 보여준다. 자녀 양육은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이고 남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애정표현이다.

42. 《휴머니즘의 동물학》

비투스 B. 드뢰셔 지음 | 이영희 옮김 | 이마고 | 512쪽 | 값 18,000원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동물들의 모습이 담겼다. 약자에 의한 승리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연대와 협력으로 동물은 생존한다. 200여 종의 동물이 보여주는 조화와 협력의 생존원칙을 알면 오늘날 인간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다.

43. 《호모 에로티쿠스 : 동물행동학으로 보는 인간의 성과 사랑》

다케우치 구미코 지음 | 태선주 옮김 | 청어람미디어 | 304쪽 | 값 10,000원

동물행동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성과 사랑에 관한 50여 가지의 유쾌하고 원초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은 책이다. 자위행위와 동성애의 의미를 언급해 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동물행동학의 최신 연구성과들을 제시해 단순한 성 상식에 관한 실용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44. 《3미터의 삶》 이노노 지음 | 오늘의책 | 228쪽 | 값 7,500원

1미터가 조금 넘는 줄에 묶인 개의 행동반경은 지름 3미터 이내의 원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가슴에도 사랑은 가득하다. 이 책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주인을 구한 이야기, 주인의 무덤을 지키다 끝내 굶어죽은 이야기 등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들에 관한 빛과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45. 《하치 이야기》

신도 가네토 지음 | 박순분 옮김 | 이관수 그림 | 책이있는마음 | 194쪽 | 값 8,000원

시골 농가에서 태어나 은사의 집으로 보내진 강아지 ‘하치’는 주인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자란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주인이 죽어 떠돌이 신세가 되지만 주인을 배웅하고 마중 나가던 기억으로 같은 길을 10여 년 동안 맴돈다. 일본의 실제 이야기를 삽화와 함께 담았다.

46. 《다이고로야, 고마워》

오타니 준코 글 | 오타니 에이지 사진 | 구혜영 옮김 | 오늘의책 | 160쪽 | 값 7,000원

아와지시 섬에서 기형 원숭이의 실태를 촬영하던 사진작가가 버림받은 기형 원숭이를 발견했다. 팔다리가 없는 300그램의 원숭이에게는 ‘다이고로’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장애 원숭이는 건강히 자라난다. 저자와 그의 가족이 다이고로와 함께한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다.

47. 《뉴스킷 수도원의 강아지들》

뉴스킷 수도원 지음 | 김윤정 옮김 | 컴온북스 | 340쪽 | 값 9,900원

수도원에서 30여 년 동안 셰퍼드를 키워 분양해 온 수도사들이 강아지를 키우기 위한 훌륭한 지침을 들려준다. 입문서 형식을 피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듯, 강아지 입양의 기초적 결정, 트레이닝, 관리와 문제해결 등을 비롯해 인간과 강아지와의 교감, 생명에 대한 깊은 사색을 전한다.

48. 《고양이러서 다행이야》

박사·이명석 지음 | 경연미 그림 | 시지락 | 270쪽 | 값 8,500원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보고 느낀 단상과 경험을 자유롭게 풀어냈다. 고양이에 대한 잡다한 지식 및 독특한 습성까지 보여주는 이 책은 고양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저자들은 부드럽고도 강한 생명력과 세련됨 등을 고양이의 매력으로 삼는다.

49. 《아름다운 이야기 : 수의사 헤리엇이 만난 사람과 동물 이야기》

제임스 헤리엇 지음 | 김석희 옮김 | 웅진닷컴 | 350쪽 | 값 7,900원

수의사인 저자가 영국 요크셔 지방의 시골에서 겪고 기록한 동물과 사람들의 이야기. 특유의 유머와 워트로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은 물론 미물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함을 강조한다. 구두쇠 과부의 고양이 치료기, 딸에게 흑심을 품지 못하게 하는 농장주 이야기 등은 절로 웃음을 자아낸다.

50. 《달은꼴 영혼》

앨런 쇼앤 지음 | 이충호 옮김 | 에피소드 | 326쪽 | 값 12,000원

사람과 동물 간의 사랑과 치유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수의사이자 수의과대학의 교수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영양섭취, 운동, 사랑, 동정, 다른 종과의 의미 있는 연결은 동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힌다. 사람이 동물과 유대감을 나누고 일깨울 수 있도록 돕는다.



기 타 (5 2 ~ 6 0)

51. 《동물, 인간의 동반자》

제임스 서펠 지음 | 윤영애 옮김 | 코기토(cogito) | 352쪽 | 값 13,000원
인류동물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저자는 인간이 동물이라는 타자를 더러는 애정으로 길들이고 더러는 비정하게 착취하는 모순된 심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해왔던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과 신화·핑계·이중 잣대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매혹적인 논조로 파헤친다. 인류동물학의 고전이 된 이 연구는 애완동물 기르기를 진지하게 고찰하면서 인간과 동물,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52. 《동물 속담 사전》 송재선 지음 | 동문선 | 646쪽 | 값 20,000원

동물을 길짐승, 날짐승, 고기 등으로 분류하고 각 동물과 관련된 속담을 종합해 엮은 책이다. 개, 소, 말 등 가까이 볼 수 있는 동물에서부터 용, 고래, 앵무새, 진드기까지 164종의 동물에 대한 속담 800여 종을 모았다. 속담에도 동물들의 특성이 나타나 있다.

53. 《동식물에 관한 상식의 오류사전》

울리히 슈미트 지음 | 조경수 옮김 | 경당 | 270쪽 | 값 10,000원
동물과 식물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속담, 학교에 보이는 진실에도 숨어 있는 오해가 있다. 생물학자인 저자는 이러한 266가지 오류를 자세히 짚어준다. '복날 더위는 개도 참기 힘들다?' '돌고래는 바다에만 산다?' '모든 새가 날 수 있다?' 등 흥미로운 질문을 통해 상식을 깨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54. 《동물의 언어》 스티븐 하트 지음 | 이웅철 옮김 | 김영사 | 200쪽 | 값 4,900원

원숭이나 돌고래가 인간과 대화 할 수 있을까? 고래, 새, 코끼리의 노래 속에 언어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여러 종의 동물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동물행동학 관점에서 연구해 그 성과를 담은 책이다. 다양한 수단으로 소통하는 신비스러운 동물들의 언어를 소개한다.

55. 《마지막 기회》

더글러스 애덤스·마크 카워드인 지음 | 최용준 옮김 | 해나무 | 360쪽 | 값 12,800원
세계적인 SF작가와 동물학자가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한 동물들을 찾아 나섰다. 놀랄 만큼 다양하지만 위협에 놓인 동물들의 왕국을 더글러스 특유의 유쾌하고 통렬한 문장으로 전한다. 지구 모습 뒤에 감춰진 야생 동물세계가 감동적이고 매혹적이다.

56. 《세기말의 동물이야기》

제롬 스트라질라 지음 | 김교신 옮김 | 문학세계사 | 330쪽 | 값 7,000원
세계 각지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동물세계의 불가사의한 현상을 탐구한 책이다. 인간이 가져온 질병 이야기, 전쟁 이야기를 비롯해 파란 귀를 가진 돼지의 비밀, 나비들의 목가적인 죽음 등 40여 편의 이야기를 담았다.

57. 《한국의 야생동물지》

S. 베리만 지음 | 신복룡 외 옮김 | 집문당 | 318쪽 | 값 13,000원
구한말 외국인기록 시리즈 22번째 책으로 시베리아를 거쳐 조선으로 와 수도 경성과 백두산 등을 다니면서 한국의 풍속을 기록한 책이다. 사냥을 비롯해 혼례, 장례의 풍습뿐 아니라 벚꽃놀이, 봉산탈춤과 한국의 기생 등 스웨덴 생태연구학자가 바라본 구한말 한국의 모습이 담겼다.

58.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전2권)

존 로빈스 지음 | 이무열 옮김 | 아름다미디어 | 356쪽 | 값 8,800원
각종 암과 동맥경화,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 상당수가 몸에 좋다고 먹은 고기와 생선, 우유, 달걀이 원인이라면? 고기를 통해 독극물과 인공 호르몬, 화학약품을 섭취하고 있다면? 이 책은 기존 식생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인의 건강과 인류의 복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한다.

59. 《The Blue Day Book: 누구에게나 우울한 날은 있다》

브래들리 트레버 그리브 지음 | 신현림 옮김 | 바다출판사 | 192쪽 | 값 6,800원
화가, 시나리오 작가, 만화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저자가 말 못하는 동물들의 생생한 표정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포착하고 시진에 맞는 기발하고 재미있는 설명을 덧붙인 책이다.

60. 《보노보 :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프랑스 드 알 글 | 프란스 란팅 사진 | 김소정 옮김 | 새물결 | 256쪽 | 값 35,000원
최초의 유인원 '보노보'의 사회생활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성과를 기록한 책이다. 보노보는 모계중심의 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가며 직립보행을 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다양한 체위로 성생활을 즐긴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넘어서는 자료를 제공한다.

